

# 순창군, 실랜드 생태백신 뉴딜사업 육성

### 전북연구원과 정책간담회 탈탄소에너지자립화 주력

순창군이 치유·휴양을 바탕으로 한 '실랜드'를 활용한 생태백신(자연치유)을 연구해 '순창형 뉴딜사업'으로 적극 육성한다.

18일 순창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전북연구원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한국판 뉴딜사업에 발맞춘 순창형 뉴딜사업 발굴에 나섰다.

순창군은 이번 정책간담회를 바탕으로 생태백신(자연치유) 연구, 바이오발전단지 조성을 통한 탈탄소 에너지 자립화, 재난·환경 대응 지역주민 맞춤형 그린 리모델링 등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를 기반으로 한 농·생명 산업의 미래화, 미생물을 활용한 그린바이오 산업 등의 뉴딜사업 접목 방안을 공유했다.

김선기 전북연구원장은 "이번 정책간담회는 양 기관이 지속적인 협조와 교류를 통해 모두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순창군이 추진하는 순창형 뉴딜사업 등 정책 사업에 대해 함께 고민

## 순창군·전북연구원 정책간담회

2020. 10. 14.(수) / 건강장수연구소 세미나실



순창군과 전북발전연구원은 지난 14일 건강장수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순창형 뉴딜사업 발굴에 나섰다. <순창군 제공>

하고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사업에 순창만의 접목 방향을 모색하고 군민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발

굴해 균형현안 해결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며 "발굴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kwangju.co.kr

# 정읍시, 289억 투입해 학교주변 전봇대 뽑는다

### 16개 구간 7.22km 지중화 추진

정읍시가 정부의 그린 뉴딜사업으로 오는 2025년까지 전선-통신선 지중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로 내 도시미관을 해치는 한전 배전선로 등을 지중화해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학교 주변 통학로와 보행 불편 지역의 보행

위험 요소를 제거해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거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사업 구간은 동초등학교와 정읍여중 등 학교 주변 통학로 16개 구간 7.22km다.

국비와 한전 등의 지원을 받아 총사업비 289억 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5년간 추진한다.

이번 사업으로 한전과 공가통신, KT 전선-케이블을 매설하고 기존선로와 지장전주를 철거한다.

정읍시는 우선 내년부터 우암로(동초등학교 ~ 새암로)와 초산로(정읍여중 ~ 정주교) 구간에 대해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나머지 구간도 연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배전선로와 통신선로 지중화 사업으로 도시미관 개선은 물론 통학생과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보행자 중심의 거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남원시, 관광상품 개발비 최대 400만원 지원

### 코로나19 여행트렌드 변화 대비 여행·숙박업 등 49개 업체 대상

남원시는 포스트 코로나에 따른 여행트렌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지역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관광상품 개발비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남원시는 지난 7월말을 기점으로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체로 지정된 지역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적격 심사를 통해 200만~400만원의 상품개발비를 지원한다. 대상업체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 시설,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등 5개 분야 49개 업체다. 심사는 신청업체의 관광상품 기획, 관광업체간 연계협력, 홍보방안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받아 진행한다. 다음달 1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남원시가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해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관광상품 개발비를 최대 400만원 지원한다. 남원 광한루원 전경. <남원시 제공>

### 기자 노트

## 목숨을 건 두 경찰관의 결단



이진택  
제2사회부 부경찰장

10월 21일은 72돌을 맞는 경찰의 날이다. 기념하고 축하할 날이지만,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 도입이라는 큰 명제 앞에 경찰 내부는 그리 평온하지 않은 것은 같다.

그러나 어떠한 극한의 현실일 지라도 경찰의 제1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다. 한국전쟁 당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구레사람들의 생명과 천년 역사의 문화유적을 지켜낸 두 경찰관이 있어 오늘에도 회자되고 있다.

이 두명의 경찰관은 전시임에도 상부의 부당한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념에 따라 자신의 목숨까지 걸고 내린 결단이었다.

70년 전 한국전쟁 발발 한달 뒤인 1950년 7월 24일, 안중삼(당시 47세) 구레경찰서장은 상부로부터 명령을 하달받았다. 유치장에 갇혀있는 좌익과 북한군에 부여한 혐의의 보도연맹 관계자 480여명을 모두 사살하고 후퇴하라는 지시였다. 안 서장은 고심 끝에 이들을 살려주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이들을 살려주게 되면 돌아올 보복이 두려워 반대하는 부하들이 많았다. 특히 전시의 명령 불복종은 사형을 뜻하기도 했다.

안 서장은 480여명의 보도연맹 관계자를 경찰서 뒷마당에 모이게 한 다음 "여러분! 난 지금 내 목숨과 맞바꿔야 할 중대한 결의를 해야 할 순간에 서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을 모두 방면합니다. 이 조치로 내가 반역자로 몰려 죽을 지도 모르지만, 혹시 내가 죽으면 나의 혼이 여기있는 480명 각자의 가슴에 들어가 지킬 것이니 새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선량한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말입니다"라고 말한 뒤 모두를 석방했다.

당시 구레경찰이 파악한 불순분자는 5000여명으로, 이 중 800여명은 뚜렷하게 죄의혹이 인정됐다. 이 중에서도 극렬분자 480여명을 다시 선별해 유치장에 가뒀기에 이들을 풀어준다는 것은 감히 상상도 못 할 일이었다. 부하 경찰관들은

불안해 했다. 그러나 안 서장은 모두를 살렸다.

이 때문인지 이후 인민군이 구레를 점령했을 때 경찰 가족에 대한 보복 희생자는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안 서장은 이듬해 1월, 다시 구레경찰서장으로 부임했다. 당시 군민들은 만세를 불렀다고 한다. 지금 구레경찰서 앞 마당에는 74세로 생을 마친 안중삼 서장의 동상이 서 있다.

"절을 태우는 데는 한나절이면 족하지만, 절을 세우는 데는 천년 이상의 세월로도 부족하다."

지금으로부터 69년 전, 지리산 화엄사를 초토화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받은 차일혁 제18전투경찰대 대대장의 말이다. 당시 차 대장의 나이는 31세였다. 차 대장은 1951년 5월 한국전쟁 당시 대원들을 이끌고 남부군 토벌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는 빨치산의 근거지가 될만한 절과 암자를 모두 불태우라는 상부의 명령을 받자, 고심 끝에 화엄사 각황전(국보 67호)의 문짝만 떼어내 불태우는 기지를 발휘했다. 그리고 상부에는 문짝만 태워도 "빨치산의 은신처를 없애주었다"고 보고해 천년사찰 화엄사를 지켜냈다.

그는 작전 중 화엄사 상계사, 천은사 등 지리산 일대의 고찰과 금산사, 백양사, 선운사 등을 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찰관으로는 처음으로 지난 2008년 보훈문화훈장을 받았다. 그가 37세 나이로 세상을 떠난지 50년만의 일이었다. 남부군 총사령관 이현상을 지리산에서 사살한 후 심장강가에서 장례식을 치른 일화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구레 화엄사 일주문을 지나 50여m 오르면, 바로 오른쪽에 차일혁 경무관의 공덕비가 있어 지금까지도 화엄사를 지키고 있다.

두 경찰관의 결단을,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만약 '나'였다면 어떤 결단을 내렸을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lit@kwangju.co.kr

# 현대삼호중공업 임직원 250명 '생명나눔' 단체 헌혈

현대삼호중공업(김형관 대표이사) 임직원 250여 명이 지난 15~16일 이틀간 단체 헌혈에 참여했다. <사진>



코로나19 여파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전남지역 병원의 혈액 공급을 위한 생명나눔 실천이다.

그동안 단체 헌혈은 백혈병 환자를 돕는 사내 봉사활동이 '사랑이 있는 푸른 세상'이 주관했으나, 이번에는 보다 많은 임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회사 주관으로 실시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1999년 창립 이래 이번까지 연인원 8000여명이 헌혈에 참여했다.

현대삼호중공업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광주·전남지역의 혈액 적정 보유량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혈액 수급을 돕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암=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 ESS시공전문기업

#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